

고교 반 배치고사·강제 보충수업 없앤다

광주교육청 내년부터 방과후학교 선택제 검토

67개 일반·특성화고 고3 2만399명에 무상급식

내년부터 광주지역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 편성 배치고사'가 전면 금지된다. 또 고교 3학년 학생들은 별도의 돈을 내지 않고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정규 수업시간 이후 사실상 '강제적'으로 진행됐던 보충수업도 희망 학생들만 받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교 신입생, 반편성 고사 금지=고교 신입생들이 입학 후 학교별로 치렀던 반 편성 배치고사는 내년부터 없어진다. 반 배치 고사는 신입생들의 전반적 실력을 평가하고 성적이 좋거나 나쁜 학생이 특정 반에 몰리지 않고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치르는 시험이다. 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학교 교사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데다, 선행학

습 여부가 거론되면서 부정적 시각이 팽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점을 감안, 최근 67개 고교에 공문을 보내 올해까지만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내년부터 치르지 않기로 했다. 내년 신입생 1만8600여명에 대해서는 중학교 내신 등으로 평가토록 했다.

◇보충수업, 희망 학생만=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정규 수업 뒤 '사실상' 획일적으로 실시했던 보충수업도 전면 자율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광주 고교 상당수는 정규 수업(7교시) 이후 주당 10시간 이내로 보충수업(8~9교시)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변 분위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받는다는 학생이 적

지 않은 현실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광주지역 일반 고교 1~2학년 3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비슷하다.

보충수업(방과 후 학교)에 참여한 학생(2851명)들 가운데 주변 분위기(18.2%), 선생님 강요(13.7%), 부모님 강요(5.3%) 때문에 부득이하게 받고 있다는 응답자도 나타났다. 본인이 희망해 받는다는 학생은 58.9%였다.

운영 방식도 주당 10시간 이내로 국·영·수 과목을 중심으로 사회탐구, 과학탐구, 예술·체육 등을 끼어 넣는 이른바 '패키지' 형태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다. 사실상 학생 선택권이 반영될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교사들도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수업 개선 방안을 연구할 여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점도 불거졌다.

교육청은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 획일적 보충수업 대신, 학생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 진행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이

렇게되면 정규 수업 이후 오후 6시~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전면일괄적인 자율학습 시간·운영 계획에도 변화가 생겨 학생들 자율적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한 대책이지만 보충수업 자율화로 인한 사교육 확대 문제, 미흡한 진로탐색용 프로그램 대책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고교 3학년 무상급식=1~2학년은? =내년부터는 광주지역 153개 초등학교(8만9883명)와 91개 중학교(5만2479명)에 이어 광주지역 67개 일반계·특성화고 학생들 2만399명까지 무료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이 고 3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중식 지원) 예산 106억원을 확보하기로 하면서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147개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후 6년 만에 고교까지 확대한 것으로, 특·광역시 중에는 광주가 처음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4 해질 20:01
 해짐 17:22 달짐 09:19

강추위 절정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등 한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날씨(°C)
 광주: -4/5, 보성: -1/5, 순천: 맑음, 구름조금: -3/5, 목포: 맑음, 여수: 맑음, 영광: 눈온위결, 눈온위결: -3/4, 나주: -5/5, 진도: -1/5, 호남: -5/4, 완도: -1/5, 진주: 맑음, 구름조금: -5/4, 군산: 구름조금: -5/4, 강진: 구름조금: -3/5, 남원: 맑음, 구름조금: -6/3, 해남: 구름조금: -2/5, 옥산도: 눈온위결: 2/5, 장성: 구름조금: -5/4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오후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1.5~2.5
	면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2.0~3.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면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1.5~2.5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3.0

◇생활지수
 눈: 높음
 뇌졸중: 높음
 감기: 관심
 체감온도: 높음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37	03:21
여수	간조	만조
	21:16	16:08
	04:12	10:48
	16:50	22:56

◇주간 날씨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1/10	2/12	6/13	6/13	3/11	5/9	0/5

광주 최대규모 광천동 재개발 사업 탄력 받나

법원, 조합설립 무효 주민소송 각하... 경기체제·대출규제 등 과제

광주 최대 규모인 광천동 재개발 조합 설립 무효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낸 소송이 15일 각하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조합 측은 법원 결정으로 조합이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호재를 맞았으며 반기는 모습이지만, 남아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15일 광천동 재개발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주민 6명이 서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소송을 낸 비대위 측이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의서가 원본 없이 사본으로 제출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작성됐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사업 주체인 조합은 본격적으로 업무 추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조합 안팎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은 각종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와 주택경기 침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광천동 종합터미널 건너편 부지 42만6380㎡에 들어설 아파트 6200세대 가운데 4000세대에 이르는 일반분양분을 지역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시공업체들의 자금조달 금리가 높

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업성 등을 이유로 오는 2018년으로 예정된 착공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뇌물과 배임·횡령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는 조합장 문제도 사업 추진에 부담이다. 조합장 A씨는 지난해 말 시공사

선정 임시 총회 사업비 11억40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금품을 받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소한 절차를 어겼을지는 몰라도 불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 부지를 소유한 일부 주민들이 사업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것도 조합으로서 부담이다. 부지 소유자 중 61명은 지난 6

월부터 조합과 서구청에 조합설립동의 철회와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 측 감정평가액이 실제거래가의 1/4에 불과하며 재개발구역에서 빼달라는 입장이지만, 조합 측과 서구는 "한 번 요구를 들어주면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를 모두 수용해줘야 해서 힘들다"며 맞서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학교폭력 OUT” 15일 광주시 동구 운림중학교 학생 350명이 운동장에서 다양한 색깔의 우산을 펼쳐 ‘학교폭력 OUT’이라는 글귀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행사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운림중과 동구청, 동부경찰서가 협의해 마련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AI 농장간 전이 없다

남평 농장 3km내 6가구 조사

전남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 및 도축출하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추가 발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나주 남평 AI 발생 농장 3km 내 농장 6가구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해남 이후 무안, 나주, 장성 등에 이어 지난 10일 나주 남평까지 모두 6곳의 농장이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진과 해남에

서 야생조류 4건이 AI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돼 모두 10건이다. 이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모두 14가구 14만 마리가 살처분됐으며, 보상금(추정치)은 33억원이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하고 13·14일 가금류·축산차량 일시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조치에 나선 바 있다. 향후 농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야생조류에 대한 차단방역 및 농장 예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법, 장흥군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성(57) 장흥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로써 김 군수는 당분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둔 2월21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월 자신의 선거공보물 전과기록에 기재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내용을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연행돼 처벌받은 것처럼 거짓 소명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옥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p>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p>	<p>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p>	<p>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p>	<p>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p>
--	--	--	---